

주일 가족 예배

주일 오전 11시

인도 김용덕 목사

송영		찬양대
예배예의부름		인도자
*첫 찬송	9장 1,2절	다같이
*임재의 기원		인도자
예배 찬송	165장	다같이
교독문	134.부활절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이경미 셀장
성경봉독	빌 3:10-12	다같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참여하는 부활	김용덕 목사
찬양과 봉헌	161장	다같이
소식과 교제		인도자
*주기도송	635장	다같이
*봉헌기도 및 축도		인도자
*일어서서	다음주 기도 가용섭 셀장	
	현금 김종철 집사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40분

주일 찬양 집회		말은이
사도신경		다같이
성경봉독	벧전 5:1-11 눅 22:28-34	다같이
특송		글로리아세션
말씀	말씀이 살게 하는 삶	이연숙 전도사
찬양	복 176장	다같이
소식과 교제		인도자
축도		인도자

다음주 특송 아이패밀리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찬양과 경배		인도자
사도신경		다같이
성경봉독	삼상 26:1-5	다같이
말씀	보는 자의 복	김용덕 목사
소식과 교제		김용덕 목사
축도		김용덕 목사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찬양인도	중고등부
낭독	남산교회
기도회	김용덕 목사

다음주 주관 제1여전도회

새벽 기도 모임

월-금 오전 5시

토/일은 쉽니다

1. 행복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정도옥 사모를 찾아 주세요.

2. 오늘의 주요행사

- 09:30 / 중고등부예배
- 11:00 / 부활절·성찬식·건축안투표
- 12:00 / 셀모임
- 13:40 / 주일찬양집회
- 15:30 / 청년부모임

3. 부활절

- 예수 부활 내 부활
- 성찬식

4. 건축안 투표

- 제1안 / 2층
- 제2안 / 3층
- 제3안 / 매각 후 구입
(기타의견)

5. 셀모임

- 매주 예배 후
- 성경출석전도1등하기 도전
- 결석자 확인하기
- 손잡아 기도해주기

6. 주중행사

- ①부서별심야기도회(26일)
-중고등부
- ②다음 주 행사
-대청소
- ③다음 주 담당
-기도 / 가용섭셀장
-현금 / 김종철집사
-특송 / 아이패밀리

7. 봄맞이 대청소

- 다음 주 찬양예배 후

예배 시간 안내

주일가족예배	주일 오전 11시 분당
주일찬양예배	주일 오후 1시 40분 분당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분당
새벽기도모임	매일 오전 5시 분당 (토/일X)
심야기도모임	금요일 오후 8시 분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분당
청소년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분당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분당

- 부서별 맡겨진 자리를

8. 5월 중 행사계획

- 5일(주) / 어린이주일 연석회의 셀연합예배
- 12일(주) / 어버이주일 월례회
- 19일(주) / 각 위원회
- 26일(주) / 전교인체육대회

9. 전교인 체육대회

- 5월 26일(주)
- 용현초등학교 체육관

10. 홈페이지 신설

- https://glory.community
- 채등록요망
- 스마트폰 사용 용이

11. 교우소식

- 아기축복 / 송원어린이
송성한·강희주성도 장녀
- 특새 / 알토란 같은 참여

12. 감사소식

- 범사에감사드립니다·새벽예배감사드립니다

13. 생활속제

- 부활을 시도하기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용덕
교육전도사	이연숙
출석전도사	이을순
시무장로	정필래 김광자 원덕규
안수집사	가용섭
권사	이명희 김성자 문미화 오영숙 이은희 윤영주 이경미 여운이 한순자 김명순 송화숙 김미애
지휘	김선영
반주	김옥경 최효신 허준영

삶의 한절이라도 부활을...

어떻든 천국인으로서는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우리 삶에 어느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 있어서 그분의 몸을
이름으로 천국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관이 예수
님을 닮든지 인생관이 그러하든지 아니면 그 식성이라도 닮아야 합니
다. 그것이 작은 부활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을 품으신 충만의 삶이셨습니다. 어
느 한 순간도 어느 한 부분도 그 충만이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
도의 삶을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이긴 자가 되
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부활 참여를 위
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
도 그 몸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지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분의 부활을 축하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의 절이 그분과 같아지기를 위해서, 즉 우리 삶들
도 다 그분의 삶처럼 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부활로 함께 참여
하는 마음들의 충만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절기도 역시 지나가는 한
기념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이루어져서,
위에만 살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진대
주님의 부활은 결코 주님만의 부활이 아닌 우리의 것이 또한 되어야 하
기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날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참여하여 마침내 천국을 이루는 일까지 정진하고 정진하는 우리가 되
기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영광의교회 웹 공동체
<https://glory.community>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러면 삶도 풀릴 것입니다

이웃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만물은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에 이웃 또한 이웃의 모양으로 나타나 계신 하나님의 표현이시니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대하여 선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자유가 찾아오고 세상은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구원의 정도가 되는 것이며 고스란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보일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에 이웃은 내 구원의 게이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자기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 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리라는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회복의 참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경유의 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다윗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범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한 상황은 이상하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상황일 뿐이요, 큰 일은 큰 풀림을 주시려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해버리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으로 이어지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

지상설교 김용덕 목사
요한복음 7장 20~21절



르는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범사를 그러려니 하고 잘 넘길 수 있어야 복이 됩니다. 세상에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상하도록 찾아와서 복을 주시려는 일들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조셉 배너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오로지 선과 완벽함만을 보고 들으며 겉모습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곧장 겉모습이 숨기고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단호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안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참복이 오고 그 이름만큼 천국의 자기 자리에 가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비록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자유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그를 위하여 스스로 질서를 찾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참복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

사랑은 긍휼을 타고

사랑탐구 157

이웃의 모든 상황이, 특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
의 부르심인 줄을 알면 그...
것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안
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바로 자신을 통해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중보하기 원하신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수로가 생겨야 배가 드나들 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능력들이 운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타고 흘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마음에 어찌 하늘 능력이 실리리요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수도관처럼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물들을...

회복과 드러남

신유가이드 294

결국 치유나 회복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드러남을 위해서는 가려진 것들이 제거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그 가려진 것이 바로 사단과 함께 역사하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란 작은 의미의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발현하는 모든 생각들, 두려움들, 변민들을 충칭하는 거이라고 해도 좋을 큰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모든 은혜로 잠잠히 가라 앉아 안정된 상태를 성경은 많은 정의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사랑이며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사람이 사랑의 상태가 되면 이미 있는 강건함들이 드러나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유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활 따라하기

예수님의 모든 것은
참여하고 따라 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니
부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